

지역 메아리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김제시는 지난 9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인구정책 관련 실무담당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전북연구원 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연구용역의 과업추진상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PT발표를 하고 관련 실무담당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보고회는 저출산, 교육문화, 산업경제 등 분야별 연구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현실을 용역에 반영하고자 실무담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토론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제시는 앞으로 중간보고회의 실무의견을 검토반영한 후 다음 달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와 함께 인구감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김제시는 오는 31일 까지 1개월간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참여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및 초기 진입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유지하여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무농약)~5(유기)년간 지급되나 유기 지속 시에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가한없이 지속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내 친환경인증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도로 정비사업 재개

완주군이 동절기로 중지됐던 도로 정비사업을 재개한다.

9일 완주군은 동절기로 인해 중지했던 7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다시금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개되는 공사는 삼례 하리~신금, 화산 운산~교내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이다. 이를 포함해 완주군은 올해 총 19건의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발주해 이달 중 착공 예정인 봉동구정~통정 도로확포장 등 연장 21.06km, 66억40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을 조기집행에 맞춰 상반기에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신산업 도시로 도약할 것”

김제시 - 아이티엔지니어링,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매매계약 체결식



김제시는 지난 9일 부시장실에서 전기 완성차 생산 기업인 ㈜아이티엔지니어링과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매매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김제시는 지난 9일 부시장실에서 전기 완성차 생산 기업인 ㈜아이티엔지니어링과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매매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계약체결식에는 이우천 김제시장 권한대행과 김제시의회 나병문 의장, 온주현 안전개발위원장, 박두기 운영위원장, ㈜아이티엔지니어링 김석주 대표이사 외 임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평선산업단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상호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계약 내용은 총 17만7,121㎡(약 5만 3,580평)중 1차로 면적 8만2,211㎡(약 2만4,900평), 매매대금 98억9,700만원에 대한 계약이며, 향후 2차 면적 5만8,224.1㎡(약 17,610평)

3차 면적 3만6,685.9㎡(약 1만1,100평)에 대해 투자하기로 협의하였다.

(주)아이티엔지니어링은 그간 포스코 등 국내 기관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자체 개발한 전기 자동차 플랫폼으로 1톤 미만 상용차 제작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그야말로 불모지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 듯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린 기업으로, 올 7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2020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나병문 시의회 의장은 “김제시민과

시의회 모든 의원들을 대표하여 (주)아이티엔지니어링의 지평선산업단지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시가 신산업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환영인사를 전했다.

(주)아이티엔지니어링의 유치로 협력사와 부품사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등 전기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landmarks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매매 계약으로 지평선일반산업단지는 80%가

까운 분양률을 달성하였고, 상반기 중 계약 예정인 업체들이 계약 완료하게 되면 분양률은 84%에 이를 전망이다.

이후인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지평선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한 김석주 대표이사 외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착공부터 준공 그리고 정상 가동까지 (주)아이티엔지니어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김제시 전 공직자가 든든한 지원자로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살기좋은 농촌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 귀농귀촌 부문 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의 전국적인 명성을 공고히 했다.

지난 9일 완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농축특산물 및 귀농귀촌 부문 우수상을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101개 지자체에서 200건의 시책을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발표를 통해 수상 지자체가 결정됐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소농·고령농에게 일자리를 제공

해 소득 창출 및 농촌 삶의 질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 및 귀농귀촌세대가 증가하는 ‘살기 좋은 농촌 1번지’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정부 7개 부처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자체 공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방문 잇따라

김제시랑장학재단(권한대행 이우천)은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의 학사관리 시스템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지자체 공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지평선학당 운영 시스템 및 노하우, 시설 견학, 김제시랑장학재단 장학사업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해 울진군청 담당자 및 고우이학당 관계자 등이 지평선학당을 방문했다.

지평선학당에서는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 유명학원의 강사를 초빙, 선별고사와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수강생 선발하여 무료 방과후 수업 및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평선학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및 교육실회를 통한 입시정보 제공, 진학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전체 워크숍

완주군이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市)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열었다.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市) 비전 플랜 ▲완주 소설극장2025 ▲완주군 균형발전 정책방향 등 세가지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 완주 미래발전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20여명의 미래발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8년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계획 설명과 세부 운영방향에 대한 전체회의가 이뤄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집중호우·지진 등 자연재해 미리 대비 해야”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여름 내린 폭우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됐다. 하지만 A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마을이장의 권유로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1년에 4,000원 납부로 A씨는 28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받았다.

완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이상을 보조해주고 있다.

주택가입을 기준으로 일반인은 전체 보험료의 60%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단체보험 무료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에 비가 세는 것부터 비닐하우스 파손,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지진으로 인한 기물 파손 등 각종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특히 세입자와 1가구2주택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수령도 피해 확인 후 1주일 이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290-2034)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지진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올해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